

[서 평]

첫 발을 내딛은 미디어 연구, 일보 전진을 기대하며

-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노영기*

1. 머리말

지금까지 한국전쟁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물이 쌓여 왔다.¹⁾ 한국전쟁 기간에 발생한 전투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 1) 정병준, 2006,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양영조, 2007,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 박찬승, 2010,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조성훈, 2010,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서중석, 김득중, 강성현 공저, 2011,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선인; 전갑생, 2011,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선인;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2011,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한국구술사학회 저, 2011, 『구술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이상호, 2012,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김태우, 2013, 『폭격』, 창비; 기광서, 김보영, 양영조, 오보경, 이선우, 정병준, 한모니가, 황윤희 공저, 2014,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 한양대학교출판부; 정근식, 강성현 공저, 2016,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여성²⁾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의 배경에서부터 그 전개과정 및 결과, 그리고 한국전쟁이 남긴 영향 및 그 유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는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연구 성과물이 부족했던 까닭에 연구의 지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한 분야가 한국전쟁기의 언론을 비롯한 미디어에 관한 연구이다.

이 책의 머리말 첫 구절에서 저자는 “한국전쟁 기간 미디어와 관련한 주요 현상을 고찰”하겠다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연구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다른 분야의 연구가 “산같이 쌓여”있었으나 미디어와 관련된 성과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실정”에서 언론의 역사, 미디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저자의 목표와 지향, 그리고 도전 의식으로부터 저술되었다.

저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와 사회를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자의 지적처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만으로 볼 때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는 매우 귀중한 연구 성과물이다.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³⁾ 생소한 분야에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마치 가보지

2) 이입하, 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3) 정용욱, 2004,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 2004, 「625 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개양상」 『한국사론』 50; 장영민, 2005, 「한국전쟁 전반기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고찰」 『군사』 55; 이운규, 2010, 「625전쟁과 심리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이상호, 2011,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의 뼈라 선전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58; 이입하, 2012, 『적을 뼈라로 물어라』, 철수와 영화; 장영민, 2013,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특별방송 관련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67; 정근식, 강성현 공저, 위의 책; 김려실, 2016, 「뉴스릴 전쟁-한국전쟁 초기 미국의 뉴스릴과 ‘리버티 뉴스’의 탄생」 『사학연구』 123; 최미진, 2013, 「한국전쟁기 라디오서사와 문제안의 ‘남북삼천리」 『한국민족문화』 49; 백정숙, 2017, 「전쟁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냉전」 『역사비평』 118; 옥창준, 2017, 「사상심리전의 텍스트로서 한국전쟁」 『역사비평』 118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에 따른 두려움과 생경함을 비롯해 예측할 수 없는 난관들이 기다린다. 이 길을 헤쳐 나가며, 더 나아가 하나의 독립된 연구 성과로 제출한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장점을 가진 연구 성과이다.

게다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만 있을 뿐 아직 제대로 접근하지 시도하지 못한 평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의 연구에 천착해온 저자의 노고를 평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있는 연구를 무 자르듯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만, 평자로서의 의무감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진전된 연구를 기대하며 몇 마디 덧붙여본다.

2. 책의 구성과 내용

먼저,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역사학의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미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취급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이론적 분석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일반의 상식의 뛰어넘는 연구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며, 분석하는 저자의 노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저자는 국내 자료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과 북한 등에서 발간한 미디어 관련 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풍부한 미디어

관련 자료만으로도 이 책은 저자의 목표를 절반은 달성했다고 평가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저자는 자료 발굴과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언론학자로서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자는 각 신문에서 어떠한 내용의 사실이 쓰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의 지향과 그 변천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자료와 이것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자리 잡은 매우 귀중한 연구 성과이다. 다음으로 책의 구성을 따라가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책은 3부-1부 한국전쟁기 언론공보 정책, 2부 한국전쟁기 미디어 현상, 3부 미국과 북한의 선전 활동-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독립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저자는 ‘한국전쟁기 언론공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목에서처럼 여기서는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에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언론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공보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 전체 내용으로 볼 때, ‘한국전쟁기 언론공보 정책’이라기 보다는 이 책의 서론 격이자 한국전쟁기 미디어의 전사(前史)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자는 여기서 한국전쟁 이전의 이승만 정권의 언론과 공보정책을 구분하여 살피고 있는데, 언론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정부 수립 직후부터 이승만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을 규제하고 있었다. 저자는 언론 규제의 근거를 검토하여 ‘대한제국기 광무신문지법, 미군정기 군정 명령,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과 함께 국방부의 규제’ 등이 언론통제의 기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제를 활용하여 이승만 정권이 언론 통제와 탄압에 적극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이 같은 언론정책의 담당 기구로 공보처를 들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군에 의한 언론통제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밝히며, 이것이 정부의 규제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는 권력이며 정보의 통제는 선전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 흐름은 ‘정부 주도로 통신사의 통합과 일간 신문의 정비, 그리고 출판물법 제정 시도, 공인 기자제 실시’ 등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민간의 이의 제기에 따른 반발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언론을 탄압하는 사례로서 김종원(경남지구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겸 헌병사령부 부사령관)의 언론인 폭행사건과 국민방위군사건을 보도한 언론인을 기소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으나 언론의 반발로 인해 유야무야 되었다.

저자는 정보의 공보정책(공보선전활동)이 이승만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보 활동을 전개하는 기구로서 공보처와 공보처장, 그리고 선전대책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이 반공독재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승만 반공독재 체제가 강화되었고,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신념 수준, 더 나아가 시민 종교(civil religion)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저자는 이승만의 언론정책을 살피며 신문의 사설을 검토하여 주요 신문의 사설에 나온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사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신문의 성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동아일보」는 반이승만적 성향이지만 이승만정보다 더 철저한 반공과 반소의 노선을 주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경향신문」은 반공노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점차적으로 반공노선을 견지한 것으로 설명하며, 저자는 「조선일보」의 논조 변화가 정치지형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저자의 이러한 분석 방법은 당시 여론을 주도한 언론(신문), 그 중에서도 각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사설의 분석을 통해 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신문의 사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사설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조, 그리고 사설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

2부의 ‘전쟁 보도’에서 저자는 한국전쟁 초기 100일 가량의 인민군 점령 기간에 뉴스의 전파와 내용 등의 특징을 살펴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장의 내용도 그렇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 장이 비교적 장황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저자는 뉴스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나열하며 이를 통해 전쟁 소식이 전파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기간에 미군과 일본의 라디오 방송을 사람들이 단파라디오로 청취하고 개인별로 전파하였다. 북한 점령 기간에 이 같은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무척 위험한 일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전쟁 기간에 임시수도 부산에서의 언론을 살피고 있으나 조금은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나올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서술이라는 한계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재구성할 필요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납북되거나 피살된 언론인들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어진다. 저자는 이들의 명단을 표로 구성하고 각 언론별로 세분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한 발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들이 한국전쟁 이전에는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었으면 한다. 즉, 이들이 피살되거나 납북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채 소속만으로 분류한 것은 평면적인 분석이다. 이들의 주요 경력과 언론인으로서의 활동 등이 보충되는 게 나올 듯싶다.

저자는 임시수도 부산에서의 언론을 분석하여 다수의 신문과 통신사가 새로 출현하고 지역 신문들이 성장했던 것을 밝혀냈다. 그 동기로서 저자는 ‘신문 수요층의 형성, 신문 필자 확보의 용이성, 시설 확보의 용이성, 정보와 취재의 용이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문의 발행 뿐 아니라 그 위상도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저자의 서술과 분석에 동의한다. 임시수도 부산은 그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언론인들의 활동에 유리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중앙방송국의 분석을 통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방송의 검토하였다. 저자는 중앙방송이 유엔사령부 심리전단의 지원과 통제 아래 운영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음을 결론 내렸다.

저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출판과 잡지가 어떻게 발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해방 직후 출판물과 잡지가 활발하게 발간됨으로써 인쇄업도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해방 직후 백가쟁명의 논쟁과 정치적인 지향을 드러낸 출판물이 폭주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은 출판계에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 점은 출판계만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생산 시설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시설들이 파괴되는 것은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특히,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살상과 파괴를 수반하는 ‘총력전(總力戰)’이라는 현대전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실제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전쟁의 결과는 출판 경향에도 반영되었다. 저자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인기도서가 전쟁과 연관된 전쟁 체험 수기와 같은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가져다 준 또 다른 문화적 경향성이었다.

저자는 해방 직후 잡지가 우후죽순처럼 발간되었으나 한국전쟁 기간에 발간이 중단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앞의 출판물과 마찬가지로의 현상이다. 저자의 표현처럼 “기적”에 가까운 현상으로 잡지가 발간되고, 학생잡지 『학원』이 인기를 끌었다. 저자는 학생잡지 『학원』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으로 다양한 필진과 수준 높은 내용 등으

로 전쟁 중에 특별한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읽을거리로서 인기를 끌었다고 보았다. 또 이 시기 지식인 잡지로서 『사상계』의 출현하였다. 저자는 사상계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사회에 지적 소산을 매개하는 공기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국민의 등불이 되고자 출현한 잡지”로 평가하였다.

이 책의 3부인 ‘미국과 북한의 선전 활동’을 분석한 부분은 많은 자료에 근거한 연구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중에 전개한 정책(미디어)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아래 저자는 방송, 빠라 등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전쟁 중에서 진행한 방송(VUNC와 VOA)의 분석을 방송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방송의 한국어 방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방송이 “이념전, 국제전적 내전, 장기전, 제한등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심리전 매체”였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 유엔군의 입장과 미국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의 방송이 복구가 가능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보가 남한의 뉴스에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적 가치와 생활 방식이 수용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미국의 방송이 심리전의 매체이며 문화적 냉전의 매체였음을 규명하였다. 이 같은 저자의 주장은 냉전의 핵심적인 분야로 볼 수 있는 ‘문화 전파’ 또는 ‘심리전’의 매개체라는 면에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무척 중요한 지적이다. 추후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과 북한의 빠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빠라가 가지는 심리전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전쟁 기간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 저자는 다양한 선전선동 사업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전쟁기 점령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북한의 선전선동 사업이 소련의 사회주의 선전선동론에 의거한 사업이며 선전과 선동이 혼재되었다고 보았다. 다양한 매개체를 분석하여, 북한의 남한 점령기간에 시행된 이 사업이 김일성의 “정치와 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평가하며 전쟁 이전부터 준비되었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이러한 사업은 초기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미군이 참전하고 대규모 공세로 전세가 역전된 시기부터 “강요와 동원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반발과 거부로 그 성과가 점차 약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한국전쟁 기간에 발간된 북한의 언론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창간을 시작으로 주요 신문과 잡지 등을 출간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점령정책의 일환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던 사업이었다. 저자의 주장처럼 북한은 이러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된 전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하여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점령한 남한 지역에 북한식 제도와 법을 도입해 공산주의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김일성의 계획”에 따른 목표가 언론의 목표였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키인의 설명에 따라 북한의 선전선동을 “솔직한 거짓말과 계산된 비밀”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활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저자는 이 같은 북한의 언론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결과로 “남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저자는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을 ‘정보 제공, 정보의 해설과 비판, 문화 전수, 오락 제공, 대중 동원’으로 규정하며 전쟁 기간에는 전쟁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에 맞춰진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쟁에서 미디어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것은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

다고 한다. 저자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언론에 의해 형성된 반공주의가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는 하지만 전쟁의 영향이었음을 주장한다. 그 중에는 미국의 냉전정책 또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을 전후로 형성된 미디어의 냉전반공이데올로기는 전후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냉전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여 흑백논리가 통용되는 냉전반공사회가 되었다며,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 군부권위주의 정권시절에도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몇 가지 제안

다음으로 이견 보다는 평가가 생각하기에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점을 덧붙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첫째, 한국전쟁 초기의 오보와 관련한 문제이다. 저자는 한국전쟁 직후의 오보가 군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며, 한국전쟁 다음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언론의 오보가 형성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한 채 단순히 “당시 군이 제공한 전황 정보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많았다”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는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하면, 오보의 형성과정에 대한 세밀한 접근과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군이 왜 이 같은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 저자는 한국전쟁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냉전반공정책이 전쟁을 거치며 더욱 강경해졌으며, 그리하여 1950년대 한국 언론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주장만 제시되고 있을 뿐 어떻게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와 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 시기의 한국 사회에 냉전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당대에 어떻게 작동하며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어떻게 단절되거나 계속되는가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1950년대가 ‘반공으로 날이 새고 지는’ 시기임을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와는 다른 흐름들이 존재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1960년도의 4·19혁명이나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의 방법론에서나 그 내용에서 볼 때 이 책은 신선하면서도 적합한 언론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신문 사설을 좀 더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신문 사설이 당대의 정세나 여론을 반영하거나 역으로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문의 사설이 정세 및 여론과 어떻게 연동하고 있는가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수립부터 한국전쟁 발발 때까지의 시기는 한국 사회의 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신생 대한민국은 내외의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이기도 했다. 곧바로 이어진 한국전쟁이 그 모든 것을 용광로처럼 모든 논리를 녹여버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 수립 직후의 시기와 1949년의 시기는 많은 굴곡과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때문에 이 시기의 정세가 각 신문의 사설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덧붙이지자면, 신문의 사설이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실을 썼던 인물들의 성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시기 각 언론사의 편집진과 집필진 등을 추적해서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책의 전체적인 구성의 아쉬움이다. 2부의 3장인 '전쟁 직전 미디어와 사회'는 1부와 결합시켜 '한국전쟁 이전'의 언론에 다루었으면 어떨까 싶다.

한국전쟁기의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현상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출판물이 인기를 끌 수 있었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것이 냉전의 문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는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대표적인 잡지로서 사상계의 필진과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분석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특히, 사상계가 주한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발행된 잡지라는 점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그리고 주한미공보원을 비롯한 전 세계에 설치된 미국공보원이 미국의 냉전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구임을 감안한다면, 사상계의 출현과 기능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미디어를 매개체로 한 북한의 선전선동 사업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황의 전개와 점령 지역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점령 정책이 가지는 함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피상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북한의 점령 정책에서 언론의 역할과 그 영향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아울러서 북한의 「조선인민보」나 「해방일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주요 필진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추가되었으면 좀더 나은 분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선행 연구 거의 없는 가운데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이 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연구이다. 자료의 발굴에서만으로도 저자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저작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미디어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 연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볼 때도 주제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냉전의 시기, 그 중에서도 냉전의 첨병으로 기능할 수 있는 미디어의 분석이 시도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향후 이 같은 연구가 축적되어 한국전쟁과 냉전사 연구가 더욱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은 그러한 작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저작이며, 저자의 추후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하겠다.

